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정의로운 산업전환 공론화”

산업전환협약 후속과제 토론회 열어 ... “현대차 종속 자동차산업·시장구조 개편도 추진해야”

산업전환을 정의로운 방향으로 재편하려면 현대자동차 등 재벌이 주도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뒷받침하는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가 2월 17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



환 기획토론회’를 열고, 연구자들과 ‘금속노조 산업전환협약의 의의와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금속노조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등 사용자들과 2021년에 맺은 ‘산업전환협약’의 강화, 발전을 위해서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토론회를 열며 “지난해 중앙교섭과 사업장 교섭으로 산업전환협약을 체결해 정부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의의를 밝히면서, “아직 정부의 의미 있는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올해 산업전환 정책개입을 중심에 두고 20만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금속노조의 과제를 명확히 해야 한

다”라고 밝혔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이 ‘산업전환협약의 의의와 성과 창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했다.

“산업전환 공포 이용하는 세력 있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자동차산업 현장에 산업전환 공포가 과도하게 퍼져있고, 이런 공포를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라면서 “두려움과 수동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정부가 산업전환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전 세계에 고급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다른 국가들은 소프트웨어, 전장 연구 등 고급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는데 대한민국은 정부 차원의 육성 정

책 등이 부재하다”라면서 “사람을 키우는 산업전환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짚었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현재 산업전환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모보다 노·사 간 자율 협약에 의한 규모가 더 크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면서

“산업전환 속도를 올리려면 금속노조 산업전환협약처럼 노·사가 합심해 빠른 대응을 시작한 사업장에 금융, 기술 교육 등을 우선해서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산업전환협약의 발전방안’을 발제한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산업전환협약이 제 기능을 하려면 산업·업종·지역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할 협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이런 개입경로를 확보하려면 정부와 지자체 태도 변화 끌어내기가 관건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전환 대응에 협약이 실제 영향을 미치려면 사측의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라면서 “사측의 계획을 모르면, 정부와 자본의 입맛에 맞춘 산업전환 정책에 휘둘려, 양질

의 일자리가 줄고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예측했다.

김상민 실장은 “금속노조는 올해 통일요구로 산업전환협약에 ‘회사는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사전에 조항과 합의한다’ 라는 문구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환기 사회 대화 방안에서 노동조합을 의견수렴 대상 정도로 낮잡고 있다. 김상민 실장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 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노동조합을 취급하고 있다” 라고 꼬집었다. ILO는 ‘사회 대화는 모든 수준의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핵심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하는 대화 구조를 만들어야 진짜 ‘정의로운 전환’ 을 달성할 수 있다” 라면서 “정부가 노동조합을 전환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라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문호 워크인조직 혁신연구소장은 금속노조의 산업전환협약을 “중요한 발걸음이자 모범 사례다” 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문호 소장은 “김상민 정책실장 주장처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중요한데, 잘 되지 않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문호 소장은 “2019년 독일 금속노조가 ‘정의로운 전환’ 을 내세운 5만 명 규모의 집회로 산업전환을 공론화했듯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총궐기나 파업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덧붙였다.

토론자인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자동차그룹에 종속된 한국 자동차산업구조와 시장구조를 바꾸지 않는 산업전환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식’ 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라고 꼬집었다.

홍석범 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의 수요독점·수익독점 구조를 재편하고, 원·하청 거래 관계와 질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라면서 “부품사의 자립 역량 증대도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홍석범 연구위원은 “금속노조가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원칙과 입장’ 수립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라면서 “자본은 연구소 법인 분리, 미래차 영역 자회사 신설, 외주화



등 노동조합 회피와 노무비용 절감 전략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대응책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노조와 토론회 참가자들은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시대 과제라는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더 깊은 고민과 지혜를 모으는 토론회 등을 계속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56차 정기대의원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56차 정기대의원대회 소집공고

노조 규약 제2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56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소집합니다.

— 아 래 —

- 일 시: 2022년 3월 7일(월) 13시
- 장 소: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 안 건

- 안건1. 11기 2년차 사업평가(안) 및 결산 보고 승인 건
- 안건2. 12기 1년차 사업계획 및 2022년 투쟁방침(안) 승인 건
- 안건3. 12기 1년차 사업 예산(안) 승인 건
- 안건4. 쟁의적립금 사용 승인 건
- 안건5. 민주노총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기준(안) 승인 건
- 안건6. 감사위원 선출 건
- 안건7. 결의문 채택 건

2022년 2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윤장혁